

[(사)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회원대회 특집]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인터뷰

윤 김은진 기자 | 승인 2025.09.09 11:06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쌀산업 발전 위해 지원 다할 것"
기록적 폭우 신속 복구·추가 호우 대비
올해 약 6484억원 사업비 투입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농어촌공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사전 예방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저지대 농경지 침수, 가뭄 등에 사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본부는 충남의 쌀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용수·배수관리, 재해대응, 청년농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18회 한국쌀전업농충남도 회원대회'를 기념해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에게 이상기후 대응과 충남지역본부 중점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쌀전업농충남도 회원대회가 열립니다.

먼저 제18회 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회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시간 대한민국의 쌀 산업을 묵묵히 지켜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뿌리이자, 농업의 심장이며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 곡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내 쌀 가격 폭등으로 우리나라의 쌀이 대일 수출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수출 성과를 넘어, 국제 곡물시장이 흔들릴 때 자국 내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쌀전업농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밑바탕이 있었다. 우리 충남지역본부도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

-충남에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 7월에 충남에는 5백년 빈도를 초과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 본부는 사전에 재해취약지역과 주요 수리시설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해 전수 점검·정비를 했고 저수지 사전 방류를 통해 홍수 대비 물 그릇을 미리 확보했다. 또한 호우 시 24시간 비상대비체제를 가동해 호우가 끝날 때까지 배수장을 가동하며 농경지 침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와 추가 호우에 대한 대비를 병행하고 있다. 파손된 배수로는 재정비하고 배수장 설비 등은 응급복구를 통해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쳤으며, 순차적으로 항구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엔진 양수기 등 대체 설비를 설치해 갑작스러운 호우에 대비하고 있고, 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배수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들께서 재해 없이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기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제 '이상기후'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기후'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년과 달라진 집중호우와 가뭄의 패턴과 시기는 대응하기 어렵지만, 우리 본부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물 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와 양수장, 관정을 활용한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스마트용수관리와 AI 기반 예측시스템을 도입해 적시에 물을 대고 뺄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의 단순한 영농편의를 넘어, 미래세대도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이용해 안심하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중한 자산을 유지하는 사업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본부는 올해 약 64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충남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먼저,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청남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판교지구는 총 사업비 2500여억원으로 2029년까지 진행되며, 서천·보령·부여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더불어 지역 간 농업용수 불균형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청남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460여억원으로 2030년까지 진행되며, 해당 사업을 통해 수혜구역에 연중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일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충청남도의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충남의 고령농업인께서 1ha당 최대 1100만원을 지급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농은 농지를 지원받아 농업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농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고령농에게는 든든한 노후를 제공하는 상생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한 철거와 정비를 넘어 지역 맞춤형 재생 모델을 수립해 충남 전역 133개 지구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고, 농촌을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으로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진 기자